



2026. 6. 26 (금)

코스피 급락 코멘트

- T+2 결제일 기준 글로벌 포트폴리오 반기 리밸런싱+ETF 수급에 따른 낙폭 확대
- 리밸런싱이 맞다면 하루짜리 이슈, 펀더멘털에 기인한 반응은 아니라고 생각함
- 단기 지지대는 8,050~8,450pt(20일 이평선). PER 저점(7.1배)인 7,750pt 이하 절대적 싼 구간

투자전략

Analyst 황수욱

soowook.hwang@meritz.co.kr

오늘 급락 배경은 6월 말 결제 기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 생각.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기말 기준으로 국가·섹터·종목별 비중, 현금 비중, 위험 한도 등을 맞춰야 함. 한국 주식은 T+2 결제 구조이기 때문에 6월 30일 결제 잔고에 매도분을 반영하려면 6월 26일 거래가 사실상 마지막 유효 매매일. 따라서 최근 급등으로 한국 및 반도체 비중이 크게 확대된 계좌를 중심으로 장전 동시호가부터 외국인 바스켓 매도가 나온 것으로 해석. 한국시장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라기보다 반기말 포지션 조정에 가까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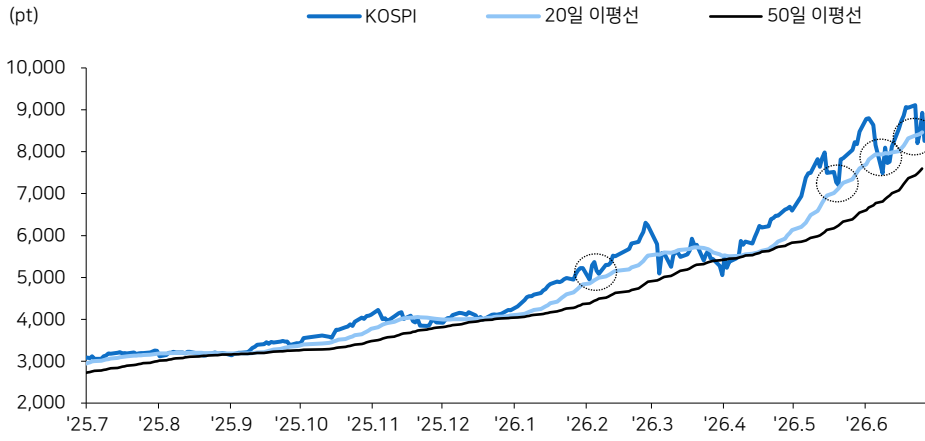
결제일 기준으로 6월말 잔고를 관리하는 계좌라면 오늘 매도는 시간적으로 설명력이 높음. 장전 동시호가부터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관찰된 점은 개별 악재 대응보다는 사전에 설정된 바스켓성 리밸런싱 주문의 성격을 시사. 여기에 이번주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하락(채권 매수)한 점도 유사한 이유이자 근거로 생각함. 여기에 레버리지 ETF 관련 파생 포지션이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임

리밸런싱에 따른 조정이 맞다면 이번 조정은 하루에 소화될 이슈, 길어야 6월 30일까지일 것. AI 수요 둔화 우려나 전일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메모리 수요 둔화 등은 부수적인 설명변수라고 생각

최근 하락 패턴을 보면,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단기 이평선이 급락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음. 상승 추세는 유효한 가운데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을 줄이는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중. 일간 등락의 높은 변동성은 시장 참여자들의 고통이나, 설명 변수가 펀더멘털에 기인한 추세 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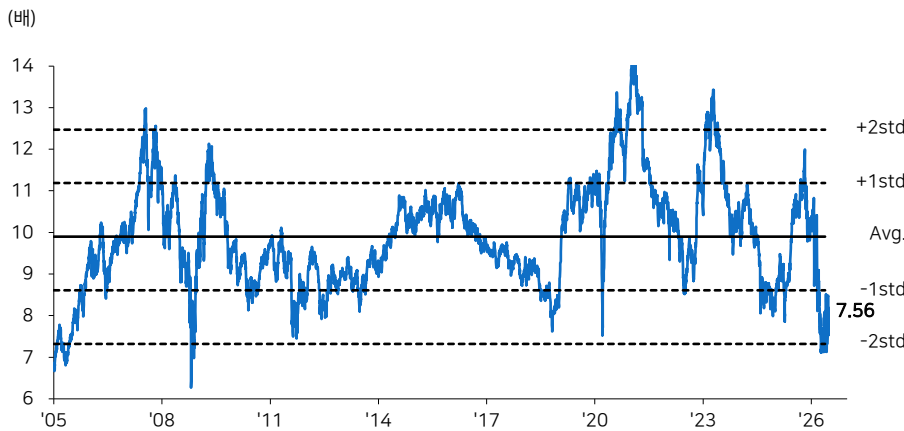
오후 2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8,247pt, 12MF PER 7.56배. 3월 이후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20일 이평선을 고려하면, 단기 지지선은 8,050pt(20일 이평선 -1표준편차)~8,450pt(20일 이평선)로 판단. 이후 월말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이제는 또다시 절대적으로 싼 구간을 고려할 수 있음. KOSPI의 연내 PER 저점은 7.1배인 7,750pt 이하는 절대적으로 싼 구간으로 인식

그림1 KOSPI 지수와 이동평균선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KOSPI 지수 12MF PER



자료: FnGuid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